

“올 추석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장보기 캠페인 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도내 각 기관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촉진에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고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전주시 등 도내 9개 시군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한 서민경제 살리기 실천의지 전달 차원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했다.

또한 장보기 행사에서 상품권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을 호성보육원 등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위문품으로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했다.

행사에 참석한 흥용옹 원장은 “추석 물가인정을 위해 도민들은 직거래 장터 이용,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이용 등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 고장상품 이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한다”고 전했다.

흥 원장은 이어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추석 제수용품 구매하도록 홍보하고, 친근하고 활발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제공해 상인들의 매출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캠페인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전통시장



이번 행사는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등 도내 9개 시군 1,000여명이 참여했다.

장보기 운동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대상의 내고장 상품 이용 캠페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추진 사업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 행사 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을 확장 전개 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에 많은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도 한가위 명절인 추석을 맞아 12일 전주신중앙시장 일원에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상공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정윤희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등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

가한 가운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매년 지역 상공인 및 유관기관과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전주상공회의소는 ‘제수용품 구입과 선물권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가우캠페인과 장보기 물품 전부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캠페인에 참여해 물품도 구입하고 불우시설들 가에도 나눠 각 기관 단체와 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도민 모두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전북은행 본점에서 2016 일석이조 추석 나눔 사랑의 쌀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 사랑의 쌀 전달 행사

백미 2,000kg 구입 ·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9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2016 일석이조 추석 나눔 사랑의 쌀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했다.

임 행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이 참석한 이번 행

사에 총 2,000kg(백미 20kg 100포)의 쌀이 전달됐다.

임 행장은 “풍요로운 추석 명절의 이면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가정에 전북은행의 이웃사랑을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주택연금 신규자 132명 달해

전북주택금융공, 도내 가입자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이화근)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도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132명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최대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64명)보다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4월 25일 출시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15% 추가 지급하고 ▲부부 중 1명만 만 60세 이상(기존 주택소유자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광영기자

도, 추석 농산물 폭등 · 축산물 소비 감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데다 추석 명절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일부 농산물 품목의 소매가격이 크게 오르는데 이어 축산물 가격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한우와 돼지고기 소비량도 늘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온라인 가격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6일 기준 시금치의 경우 1kg당 2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308% 급등했다. 또 상추 1kg당 소매가격 역시 1만2,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5%나 올랐다. 이 밖에도 사과(홍로 5kg 1상자 기준)의 경우 3만1,500원으로 지난

해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 상승 또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도는 도내 도축장 8곳을 대상으로 도가 추석 명절 도축 검사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해 한우는 71%, 돼지는 8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추석 한 달 전 기준으로 보면 한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5,284마리)의 71% 수준인 3,747마리, 돼지는 지난해(18만2,119마리)의 85% 수준인 15만5,341마리가 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우고기 가격은 사유 마릿수 감소로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는 어미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로 앞으로 가격이 약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민형 기자

한국농어촌공 내일부터 5급 신입사원 공채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부터 5급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채용인원은 총 217명으로 임급피크제 도입에 따라 평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전체 인원 중 105명은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와 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기준은 학력, 전공, 연령의 제한 없이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사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실시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전공, 상식과 인적성평가로 이뤄진다. 채용 과정은 단계별 허들식으로 이전 단계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단계의 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 분야는 행정(6명), 토목(7명), 기계(25명), 전기(24명), 지질(12명), 건축(7명), 정산(6명), 환경(4명)이다.

원서접수는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10월 말 필기시험과 11월 중순 면접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채용홈페이지(dkr.scour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광영기자

하이마트, 추석 앞두고 전기팬류 판매 증가

추석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전기그릴과 전기프라이팬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하이마트에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판매된 전기그릴과 전기프라이팬의 매출액은 직전 일주일보다 75% 판매가 증가했다.

전기그릴의 매출은 55% 전기프라이팬의 매출은 92% 늘었다. 특히 길이가 50cm가 넘어 많은 양의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대형 프라이팬의 매출이 100% 증가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명절전후에는 주부고객 방문이 평소보다 30% 가량 증가한다”며 “주부 명절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가전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마트는 추석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전기그릴, 대형 프라이팬, 대형 밥솥, 대용량 믹서 등 대형 조리용 주방 가전제품을 한데 모아 기획가에 판매한다. /뉴스

이스타항공, 추석맞이 기내 특별 행사 마련

가위바위보 통해 선물 증정

이스타항공이 추석을 맞아 기내에서 특별한 추억을 제공 한다. 이스타항공은 ET팀(이벤트 팀)을 구성해 14-15일 국내선, 국제선 항공기 기내에서 객실승무원들의 다양한 기내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선은 추석 당일 15일 고객들의 선호 시간대인 ZE209, ZE211, ZE215, ZE219 편에 한해 전 승객에게 전통 다과를 제공하며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국제선은 14일 인천-방콕(ZE511편)에 레크리에이션 팀이 투입돼 전 승객



에게 전통 다과와 수정권을 제공한다. 또 윗놀이, 민보기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스타항공 로고 상품을 증정한다. 15일 부산-방콕(ZE921편)에는 ‘복주머니를 찾아라’, 이스타 풍

선 레이스 게임을 통해 신나는 퍼포먼스와 함께 칵테일 및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스타는 사랑을 싣고’ 코너를 통해 명절을 맞아 친구, 가족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말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기내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추석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기내이벤트에도 최선을 다해 승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